

중동 국부펀드의 동향 및 투자유치 전략

2010. 10.

외국인투자정책센터

목 차

요 약	1
I. 중동 국부펀드의 부상	7
II. 중동경제의 변화와 해외투자 동향	
① 중동경제의 기본과제	11
② 중동 국부펀드 투자의 다변화	14
III. 중동 국부펀드 투자 유치 현황	
① 투자유치 실적	17
② 중동 국부펀드 동향의 국제적 관심	19
③ 중동 국부펀드 유치의 새로운 기회	22
IV. 중동 국부펀드 투자유치 전략	
① 중동국부펀드의 투자특성	24
② 투자프로젝트 별 유치전략	
(1) 기업 투자유치 프로젝트	25
(2) 부동산 및 SOC 개발사업 프로젝트	28
(3) 금융상품 투자 프로젝트	31
③ 장기적 교류기반 조성	
(1) 이슬람금융의 도입	33
(2) 장기적 관점의 對중동 네트워크 구축	38
【참고자료 1】 중동 주요 국부펀드 현황	41
【참고자료 2】 중동지역의 중요성	51

요약

1. 중동 국부펀드의 부상과 중요성

- 2000년 이후 본격화된 국제유가의 상승세를 타고 급성장한 중동 국부펀드는 막강한 자금동원력을 기반으로 활발한 투자를 하며 국제시장에서 새로운 투자주체로 부상하고 있음
- 중동은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 최대의 에너지공급지역이며 최대 플랜트수출시장인 동시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요한 지역으로, 적극적인 경제교류 기반 구축이 필요

<국가별/지역별 국부펀드 자산규모 및 비중>

(단위: 십억달러, %)

국가별	자산규모	비중	지역별	자산규모	비중
중국	928	24	중동	1,620	43
아랍에미리트	677	18	아시아	1,350	36
노르웨이	445	12	유럽	670	18
사우디아라비아	436	11	미주	90	2
싱가포르	370	10	기타	70	2
쿠웨이트	203	5	총계	3,800	100
기타	711	20			
한국(KIC)	30	0.7			
총계	3,800	100			

자료: IFSL Research (March 2010), Sovereign Wealth Fund Institute (June 2010)

- 중동지역 국가들이 운영하는 국부펀드의 자산규모는 세계 국부펀드 총 자산의 43%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유가의 증가세로 인한 석유수입과 자본증가의 결과로 중동 국부펀드의 영향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중국은 2010년 발표된 국부펀드 순위 내에 자국의 3개 국부펀드가 선정되는 등, 최근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국으로 등극한 이후 외환잉여자금의 적극적 관리행보에 나서고 있어 향후 국부펀드의 주요 투자유치 대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2. 중동 경제의 변화와 해외투자 동향

- 중동국가들은 post-oil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 경제발전 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조 달러에 육박하는 국부펀드의 운용을 통해 미래를 위한 재원마련에 주력하고 있음
- 과거 미국의 국채 등 서방 선진국의 안정적인 금융자산 위주의 투자에서 최근에는 고수익성 금융상품과 부동산, 기업지분인수 등 아시아 및 신흥시장으로 투자대상의 다양화 모색

<중동 국부펀드의 최근 해외투자 형태 변화>

투자기준	안정성 위주	⇒	안정성 + 수익성
투자지역	미국 및 유럽선진국	⇒	중동 및 아시아 등 신흥시장
투자대상	은행예금, 선진국 국채	⇒	M&A, 부동산, 펀드 등 다양

3. 對韓 투자 현황 및 투자부진 요인

-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고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과 비중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중동의 對韓 투자실적은 전체 외국인투자의 1%를 밑도는 수준

<중동지역 투자유치 실적>

(단위: 천달러, %)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체 실적	11,565,528	11,247,441	10,515,625	11,711,743	11,483,991
요르단	1,804	1,115	716	1,594	2,069
이란	354	566	5,502	2,152	1,394
레바논	50	-	-	150	140
사우디	13,478	8,335	17,147	10,700	230,049
쿠웨이트	-	-	-	222	-
예멘	-	-	56	-	82
바레인	-	105	-	1,635	-
이스라엘	2,953	1,713	1,090	256	83
시리아	346	103	273	426	597
UAE	7,150	8,547	44,992	6,263	1,037
오만	-	21,700	12,435	-	-
이라크	-	247	1,397	3,102	2,691
카타르	-	-	-	-	41
기타(중동)	11,108	1,727	-	328	221
중동지역총계	37,243	44,159	83,608	26,829	238,402
중동비중	0.32	0.39	0.80	0.23	2.08

자료: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통계(신고기준)

- 중동 국부펀드의 투자는 그동안 서방 선진국의 안정적 금융 상품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투자대상으로서 한국에 대한 정보와 인식이 부족
- 한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중동 국부펀드의 정보부족이 가장 기본적인 투자부진요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금융시장 및 투자 절차가 폐쇄적이라는 선입견, 중국·인도에 비해 투자대상이 풍부하지 않다는 점, 문화적 차이로 인한 심리적 거리감과 언어 소통의 불편함 등도 투자저해요인으로 작용

- 투자유치사절단 활동 시 투자가 질문에 즉시 답할 수 없는 각종 규제·법규 및 인허가절차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투자여부를 결정하게 만드는 프로젝트의 투자규모, 수익률, 참여업체, 투자금 회수시기 등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투자가의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투자를 포기하는 상황도 발생

4. 중동 국부펀드 유치의 새로운 기회

-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전 세계의 경제침체로 인해 중동 국부펀드의 투자대상이 안정적인 서방 선진국에서 높은 성장성이 담보되는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점은 한국기업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음
- 유동성이 풍부하고 막대한 자금동원력을 갖춘 중동 국부펀드는 공기업 민영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등 한국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 부응할 수 있는 주요한 투자자임
- 한국의 UAE 원전수주를 시작으로 중동지역의 에너지, 해양설비, 담수 등 플랜트 수주가 잇따르는 등 한-중동 간 다양한 경협사업을 통해 한국의 경제를 알리고 새로운 투자기회를 소개할 기반이 조성
- 중동 국부펀드 유치를 위해 금융시스템의 선진화, 투자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중동 측에서 관심을 보이는 공기업 민영화 및 대기업 구조조정 매물 등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등 장·단기에 걸친 구체적인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됨

<정책 제안>

1. 프로젝트별 투자 유치 전략 구사

- 중동 국부펀드는 일반적으로 재무적 투자자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투자 프로젝트에 따라 향후 중동 국가의 경제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전략적 투자자의 성향을 보이기도 함
- 막대한 규모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부펀드 투자 특성상 소형 프로젝트보다는 큰 자본이 투입되는 중대형 프로젝트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이 필요한 프로젝트 제안이 적절

<프로젝트 별 투자유치 전략>

프로젝트		투자유치 전략
기업투자 유치	기업구조조정 (M&A)	▪ 공기업 민영화 및 대기업 계열사의 지분매각 등 기업구조조정 시, 중동 국부펀드가 참여할 수 있는 투자 구조를 조성 ▪ 투자자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경영권 이슈를 야기하지 않는 자본투자구조 마련
	고성장 중견기업 투자유치	▪ 정보통신, 반도체, 바이오 등 대규모 투자유치가 필요하고, 성장성이 높은 선도 기업들을 중동 국부펀드 투자대상으로 적극 소개
	중동의 산업발전정책 부합기업 투자유치	▪ 석유화학, 환경, IT/벤처, 신재생에너지 등 중동의 산업화 정책에 부합하는 분야의 투자대상 발굴 ▪ 역내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중동의 필요성을 반영, 양방향 투자협력 형태를 추진
부동산 및 SOC 개발사업		▪ 재무적투자자로서의 참여 성격이 강하므로, 참여 기업, 일정, 수익성 등 확정된 사업구조를 제시 ▪ 해외 플랜트 수주 및 자원개발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한(기술)-중동(자본) 합작 패키지 개발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 유치		▪ 국내펀드 조성 시 중동 국부펀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내 유수의 PEF, VC를 소개 ▪ 장기적으로 한국 금융기관의 글로벌화 및 금융 시스템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

2. 장기적 교류기반 조성

① 이슬람 금융의 도입

- 이슬람금융의 국내도입은 중동지역의 오일머니를 대거 유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이슬람 금융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조세혜택과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각국의 정책이 경쟁적으로 추진 중
- 한국은 이슬람금융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며 대표적인 이슬람 금융상품인 이슬람채권(Sukuk) 도입의 필요성이 공감을 얻으며 추진 중이나 현재 금융, 회계, 조세 등 관련제도의 미비로 발행실적이 전무
- 2009년 9월 이슬람채권(Sukuk)에 대한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반대의견이 있어 논의가 무산되었으며, 2010년 9월 현재 국회에 1년째 계류 중인 이슬람금융의 국내도입을 위한 빠른 조치가 필요

② 장기적 관점의 對중동 네트워크 구축

- 중동은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적 문화특성이 강한 지역으로 장기적 관점의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중요하며, 對 중동 교류 정례화 및 한국투자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작업이 필요
- 장기적으로 경제·에너지·외교·문화 등 각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부문별 협력방안 추진이 필요하며, 한 분야의 협력이 다른 분야의 진출 혹은 협력을 촉진하는 시너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I. 중동 국부펀드의 부상

- 국부펀드는 외화자산으로 기금이 조성된 정부소유의 투자기구로 국가의 경제적 안정성 유지와 국부 저장을 위한 재원마련에 그 취지가 있으며, 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소유·운영됨
 - － 일반적으로 국부펀드는 중앙은행과는 별도의 투자청 (Investment Authority) 또는 별도기관에서 운영되며, 국가별로 1개의 투자청으로 시작하여 산하 또는 별도의 연관 투자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
 - － 주로 잉여 외환의 안정적 관리를 주목적으로 하여 장기 투자형식을 취하나, 최근에는 수익성이 보다 강조되어 공격적인 투자행태를 보이고 있음
 - － 특히 2004년 이후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세를 타고 급성장한 중동 국부펀드는 막강한 자금동원력을 기반으로 활발한 투자를 하며 국제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음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 ◇ 정부가 재정흑자 등의 외화 잉여자금을 재원으로 자산을 조성해 수익성 위주로 운용하는 투자기금으로 중앙은행(통화정책당국)의 공적인 외환보유고와는 별도로 운용
- ◇ 국부펀드는 재원의 성격에 따라 원유나 가스 등 원자재수출을 통해 유입된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상품펀드(commodity fund)와 국제수지 흑자를 통해 유입된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재원으로 삼아 설립한 비상상품펀드(non-commodity fund)로 구분
- ◇ 과거 국부펀드의 주요 투자대상은 국채(國債)와 같은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주식, 부동산, 파생상품 뿐만 아니라 기업 M&A, PEF 투자 등 고수익성 위험 자산으로 그 투자대상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

- 중동 국가들은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이를 통해 유입된 막대한 자본을 기반으로 대규모의 국부펀드를 보유해 투자유치 잠재력이 매우 큰 대상임
 - － 세계 각국의 금융 및 기간산업, 에너지, 부동산 등에 투자하며 누적된 국부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유치하려는 세계 각국 기업들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음
 - － 2000년대 이후 유가급등에 따른 오일머니의 축적으로 국부펀드의 규모가 급성장해 이미 상당한 규모의 자본을 축적했으며, 걸프지역 산유국이 운영하는 국부펀드의 자산 규모는 약 1조 6천억 달러로 세계 국부펀드 총 자산 3조 8천억 달러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짐

<국가별/지역별 국부펀드 자산규모 및 비중>

(단위: 십억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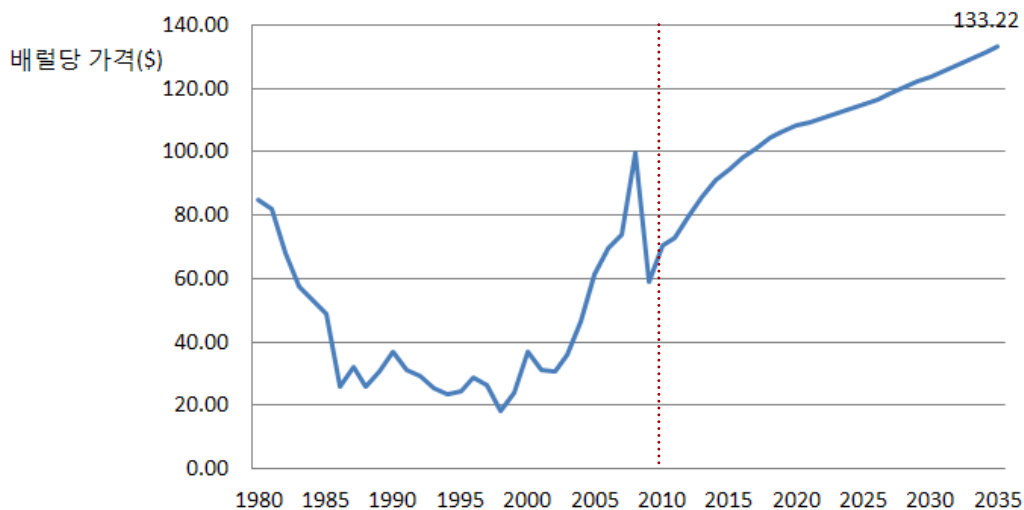
국가별	자산규모	비중	지역별	자산규모	비중
중국	928	24	중동	1,620	43
아랍에미리트	677	18	아시아	1,350	36
노르웨이	445	12	유럽	670	18
사우디아라비아	436	11	미주	90	2
싱가포르	370	10	기타	70	2
쿠웨이트	203	5	총계	3,800	100
기타	711	20			
한국(KIC)	30	0.7			
총계	3,800	100			

자료: IFSL Research (March 2010), Sovereign Wealth Fund Institute (June 2010)

- － 중국은 2010년 발표된 국부펀드 순위 내에 중국외환투자공사(SAFE Investment Company), 중국투자공사(China Investment Corporation), 국영사회보장기금(National Social Security Fund)등 3개의 국부펀드가 선정되는 등 최근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국으로 등극한 이후 외환잉여자금의 적극적 관리행보에 나서고 있어 투자유치 대상으로 급부상

- 2000년 이후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유가는 2015년 이후에는 연평균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35년 무렵에는 배럴당 133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EIA, 2010 Annual Report)
- 유가는 중동지역에 특별한 정치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한 향후 10년간 5% 내외의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며, 같은 기간 중동 산유국이 오일머니로 벌어들일 자금은 2008년 가격 기준으로 10조 달러로 현 중동 GDP의 5.3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석유수입과 자본증가의 결과로 2015년 전 세계 국부펀드는 약 12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동 국부펀드의 영향력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국제유가 추이 및 전망 (1980-2035)>



자료: U.S. EIA /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10

- UAE와 쿠웨이트는 6~70년대부터 정부기금을 운영해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국부펀드인 아부다비투자청(ADIA)과 쿠웨이트투자청(KIA)은 최근에도 활발한 투자활동을 전개
- UAE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펀드인 아부다비투자청(ADIA)을 비롯하여 ADIC, 에미레이트투자청(EIA), 두바이투자법인, 무바달라개발회사, IPIC 등 가장 많은 국부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며, 활발한 투자활동을 펼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SAMA Foreign Holdings를 비롯해 공공투자펀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방선진국가의 국채와 같이 유동성이 확보된 안정자산에 장기 투자하는 성향을 보임
- 쿠웨이트는 국부펀드 운영에 있어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영국에 위치한 자회사에 기반을 두고 펀드를 운영

<중동 국부펀드 현황>

2010. 6. 1. 현재

국가	국부펀드명	자산규모 (억달러)	설립년도	재원
아랍 에미리트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6270	1976	원유
	Investment Corporation of Dubai	196	2006	원유
	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mpany	140	1984	원유
	Mubadala Development Company	133	2002	원유
	RAK Investment Authority	12	2005	원유
	Emirates Investment Authority	n/a	2007	원유
	Abu Dhabi Investment Council	n/a	2007	원유
사우디 아라비아	SAMA Foreign Holdings	4150	n/a	원유
	Public Investment Fund	53	2008	원유
쿠웨이트	Kuwait Investment Authority	2028	1953	원유
리비아	Libyan Investment Authority	700	2006	원유
카타르	Qatar Investment Authority	650	2005	원유
이란	Oil Stabilisation Fund	230	1999	원유
바레인	Mumtalakat Holding Company	91	2006	원유
오만	State General Reserve Fund	82	1980	원유·가스

자료: Sovereign Wealth Fund Institute

II. 중동경제의 변화와 해외투자동향

1

중동경제의 기본과제

- 중동지역은 지속적인 유가 상승, 내수 시장 확대 등을 기반으로 세계 주요 지역보다 빠른 경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적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09년에 2.2% 성장하였으며, '10년은 4.5%, '11년은 4.8%의 높은 성장이 전망됨

<세계 주요 지역별 성장률 전망>

(단위: %)

세계			미주			유럽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0.8	3.9	4.3	△2.5	2.7	2.4	△3.9	1.0	1.6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2.2	4.5	4.8	△2.3	3.7	3.8	1.9	4.3	5.3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10.1)

- 그러나 국가의 경제가 석유 및 정유관련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되어 있어 유가변동과 같은 세계경제의 부침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중동지역의 경제성장률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9년까지의 저유가시기에 연평균 2.6%에 불과했으나, 유가상승기인 2000년대에는 5.3%를 기록하였으며, 그 중 급등기인 2004~2008년의 5년간에는 6.5%를 기록하는 등 유가와 밀접한 구조를 보임
 - 중동 국가 대부분의 기업이 석유 관련 국영기업으로 혁신을 주도하는 민간기업의 활동이 저조한 상황이며, 이들 국영기업의 생산액이 전체 GDP의 50%를 상회할 정도로 비중이 큼
 - 석유생산 및 수출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산업구조와 기본 산업 인프라의 부족,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의 부족이 장기적 성장의 기본 한계로 지적

□ 전력, 도로, 항만 등 기본적 산업인프라의 절대적 부족은 경제발전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

— 중동지역의 전력수요 증가율은 연 10%로 세계 최고 수준이나, 현재의 인프라 수준으로는 급등하는 전력수요에 부족, 최근에는 이러한 전력부족의 대안으로 원자력발전을 제시

— 한국의 원전수주로 유명한 UAE의 아부다비의 경우 중동 3위의 산유국이지만 경제발전에 근간이 되는 전력공급원을 장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원전에 주목함

□ 중동지역의 석유자산이 최대 100년 남짓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며, 중동 국가 내에서 석유 고갈 이후(post-oil)의 경제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

— 2010년을 기준으로 약 30년 이후부터는 중동국가의 대부분이 석유에 의존하는 수입구조로는 현재와 같은 성장세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중동 주요 국가의 석유매장량 현황>

(단위: 십억배럴, 년)

	UAE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중동 전체
매장량	98	102	264	6	27	754
채굴가능 년수	90	100	67	21	54	79

자료: 대한석유협회

□ 중동 국가들은 산업구조의 脫석유화라는 기본 과제를 해결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 경제발전 성장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노력

— 산업구조 다각화를 통해 현 재정수입의 70~90%를 차지하는 석유의존도를 낮추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新국가개발계획을 추진 중

<중동 주요 국가의 경제개발계획>

국가	경제개발계획	중점육성분야	투입 예산
UAE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 아부다비 경제 전략 계획(2009-2013)	석유화학, 금속, 의료, 관광, 금융, 정보통신, 신재생에너지	3,000억불('30까지)
	두바이 경제계획 2015	관광, 건설, 의료, SOC, 문화, 교육	-
카타르	카타르 국가 비전 2030 국가 개발 전략(2010-2015)	에너지, 교육, 금융, 관광, 정보통신	1,380억불('12까지)
사우디 아라비아	장기 전략(2005-2024) 제9차 개발계획(2010-2014)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의료, 교육, 금융, SOC, 건설자재	3,385억불('14까지)
오만	오만경제를 위한 비전 제8차 경제개발계획(2011-2015)	SOC, 산업단지건설	370억불('15까지)
쿠웨이트	경제개발계획(2010-2014)	석유화학, 건설, SOC, 관광, 정보통신, 청정에너지	1,040억불('14까지)

자료: 각종 언론보도자료 종합

□ 중동경제의 기본 성장 방향은 석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서비스산업 및 친환경산업 육성, 산업인프라 구축을 기본으로 함

- 석유매장량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의 아부다비는 석유화학 및 정유 부문의 고부가 산업육성을 기본으로 환경도시, 교육, 문화 등 차별화된 산업화를 추구
-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제8차 경제개발기간(2005-2009)에 석유화학 부문에서 연평균 7.3%의 성장률을 목표로 고성장모델 전환을 시도한 바 있으며, 2010년 아부다비에 이어 2011년에 중동 플랜트 발주를 견인할 국가로 지목되고 있음
- 석유자원이 빈약한 것으로 알려진 두바이는 전통적인 에너지 분야 투자에서 벗어나 금융 및 서비스산업 육성을 지속하되, 2009년 말 겪은 채무위기로 인해 중동국가로부터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석유매장량이 가장 적은 오만도 석유자원 고갈에 대비, 대규모 SOC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음

- 약 2조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역내 산업발전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으며, 동시에 축적된 국부펀드를 수익성 있는 투자처에 운용함으로써 미래를 위한 재원비축에 주력
- 중동 지역 내 산업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술부문과 수익성 높은 국부펀드 운용을 목표로 한 해외투자가 예상되는 바, 중동지역이 주요한 투자유치 대상으로 각광을 받고 있음

2 중동 국부펀드 투자의 다변화

- 중동 국부펀드는 과거 미국의 국채 등 서방 선진국의 안정적인 금융자산 위주의 투자에서 최근 투자대상을 고수익성 금융상품과 부동산 및 기업인수 등 아시아 신흥시장으로 다양화하고 있음

<중동 국부펀드의 최근 해외투자 형태 변화>

투자기준	안정성 위주	⇒	안정성 + 수익성
투자지역	미국 및 유럽선진국	⇒	중동 및 아시아 등 신흥시장
투자대상	은행예금, 선진국 국채	⇒	M&A, 부동산, 펀드 등 다양

- 중동의 대표적 국부펀드들이 최근 미국의 재정적자와 서브프라임 사태 및 리먼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로 기존의 투자지역에서 손실을 입고 전체적 투자활동을 축소하였으며 역내 자국 기업지원 및 BRICs, 아시아 지역과 같이 성장성이 높은 신흥 시장 투자로 정책을 선회
- 또한 2003년 이라크 전쟁, 2008년 달러화 약세로 인한 수차례의 유가폭등을 계기로 대폭 확대된 중동 국부펀드의 자산 규모가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나서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

<중동 주요 국부펀드의 최근 투자 사례>

(단위: 억달러)

국부펀드(국가)	투자대상(국가)	투자규모	연도	참고
ADIA(UAE)	Citigroup(미국)	75	2007	시티그룹 지분 4.9% 인수
	Gatwick Airport(영국)	-	2010	지분 15% 매입
	British Petroleum(영국)	-	2010	지분 10% 매입
IPIC(UAE)	Cosmo Oil(일본)	7.8	2007	20.85% 지분인수를 통해 일본 4대 정유회사의 최대주주
Mubadala Development Co.(UAE)	The Carlyle Group(미국)	13.5	2007	세계적 사모펀드 7.5% 지분인수
Borse Dubai(UAE)	NASDAQ(미국)	-	2007	나스닥 지분 19.99% 인수
Dubai International Capital(UAE)	Sony(일본)	15	2007	3% 지분매입 추정
Dubai World (UAE)	MGM Mirage(미국)	50	2007	라스베가스 카지노 운영
	Cirque Du Soleil(캐나다)	-	2008	태양의서커스 지분 20% 인수
Qatar Investment Authority (카타르)	Cegelec(프랑스)	29.6	2008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체 인수
	Chelsea Barrack(영국)	18.5	2008	영국 국방부 부동산 매입 후 관광시설로 개조 예정
	Harrods(영국)	23.4	2010	영국 최고급 백화점 인수
Kuwait Investment Authority (쿠웨이트)	Merrill Lynch(미국)	20	2008	전환주 우선매입
	Citigroup(미국)	30	2008	전환주 우선매입

자료: KIEP 지역경제포커스(2009) 및 각종 언론보도자료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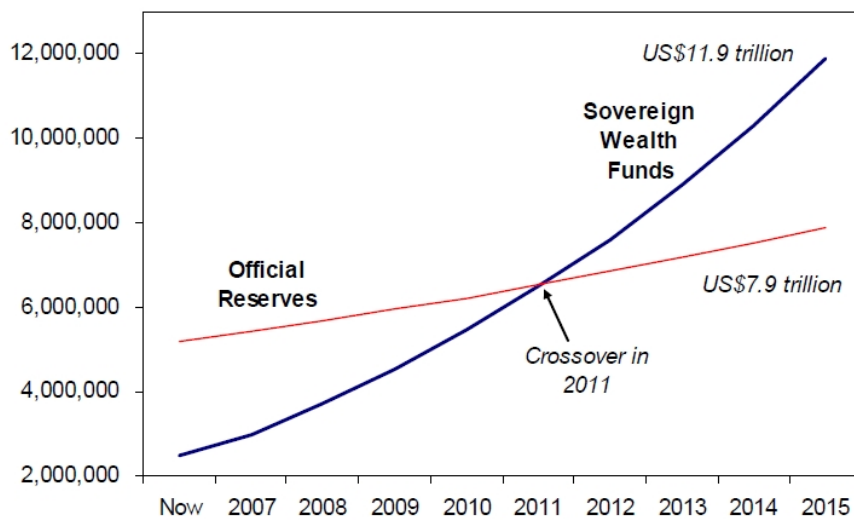
□ 중동 국부펀드는 자국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정유 및 에너지 관련 분야의 투자에 중점을 두어왔으나 최근에는 관광, 문화, 유통, 부동산, 금융 등의 분야로 투자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임

- UAE의 아부다비투자청(ADIA)은 2010년 영국의 개트윅 공항 인수에 이어 최근 멕시코만 기름유출사태로 곤경에 빠진 BP의 지분을 인수
- 카타르투자청(QIA)은 2010년 7월, 3억 달러를 투자해 그리스 최대 은행인 내셔널뱅크오브그리스(NBG)의 지분 5~7% 인수에 나섬 (Financial Times)

- 전 세계 국부펀드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2011년 말을 기점으로 외환보유고를 추월할 것이며, 2015년까지 국부펀드의 규모가 12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국부펀드의 성장 전망>

(단위: 백만달러)



자료: Morgan Stanley Research Estimate

- 풍부한 유동성을 지닌 잠재투자자인 중동 국부펀드에 대한 전략적 투자유치 방안 모색이 요구됨

Ⅲ. 중동 국부펀드 투자 유치 현황

1

투자유치 실적

□ 중동지역은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고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과 비중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對韓 투자실적은 매우 낮음

- 2000년 이후 투자유치 실적은 중동 전체 국가를 합한 투자실적이 외국인 투자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보여 왔으며, 2009년 2.8%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중동지역의 투자력에 비교할 때 매우 미미한 수준임

<중동지역 투자유치 실적>

(단위: 천달러, %)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체 실적	12,795,594	11,565,528	11,247,441	10,515,625	11,711,743	11,483,991
요르단	3,452	1,804	1,115	716	1,594	2,069
이란	507	354	566	5,502	2,152	1,394
레바논	-	50	-	-	150	140
사우디	-	13,478	8,335	17,147	10,700	230,049
쿠웨이트	-	-	-	-	222	-
예멘	-	-	-	56	-	82
바레인	-	-	105	-	1,635	-
이스라엘	27,791	2,953	1,713	1,090	256	83
시리아	237	346	103	273	426	597
UAE	500	7,150	8,547	44,992	6,263	1,037
오만	33,000	-	21,700	12,435	-	-
이라크	-	-	247	1,397	3,102	2,691
카타르	-	-	-	-	-	41
기타(중동)	555	11,108	1,727	-	328	221
중동지역총계	66,041	37,243	44,159	83,608	26,829	238,402
중동비중	0.52	0.32	0.39	0.80	0.23	2.08

자료: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통계(신고기준)

- 중동 국부펀드는 전통적으로 미국 및 유럽 등 서방 선진국의 국제 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성향을 보여왔으며, 아시아 투자는 초기 단계라 할 수 있음
- 한국의 외국인투자유치 노력 또한 그동안 서방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투자유치 대상으로서 중동에 한국을 알리는 작업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음

□ 한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중동 국부펀드의 정보부족이 對韓 투자실적 부진의 기본 원인으로 꼽힘 (두바이KBC, 2008)

- 對韓 투자를 위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으며, 금융시장 및 투자절차가 폐쇄적이라는 선입견, 중국·인도에 비해 투자대상이 풍부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
- 아시아권 내에서도 동일 문화/종교배경을 가진 동남아 국가 및 싱가포르보다 한국이 심리적 거리감이 크며, 영어 및 이슬람권 국가들보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부담감도 對韓 투자의 저해 요인

□ 불분명한 한국 투자 프로젝트 제시 또한 한계로 작용

- 투자유치사절단 활동 시 투자가 질문에 즉시 답할 수 없는 각종 규제·법규 및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해 투자가의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투자를 외면하는 상황도 발생
- 중동 국부펀드로부터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만드는 자료인 투자규모, 수익률, 투자금 회수시기 등 객관적 근거자료 부족으로 인해 적극적인 설득에 실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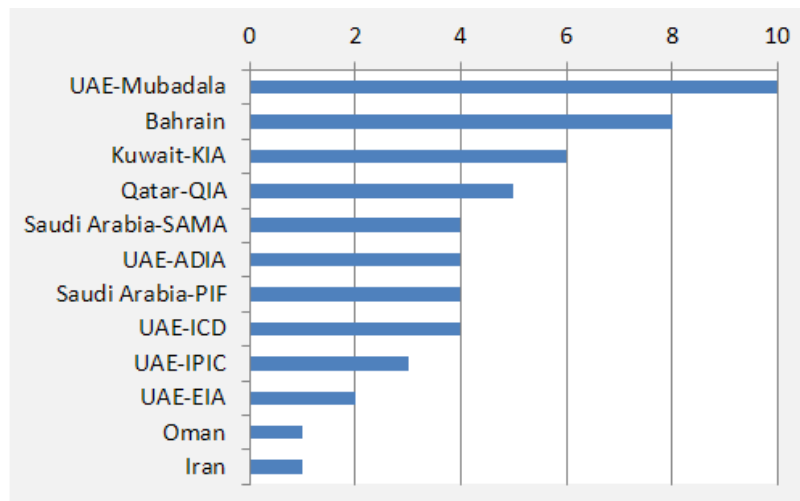
중동 국부펀드 동향의 국제적 관심

- 중동 국부펀드는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과 경기침체 및 인플레이션과 같이 국제경제의 불안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중요한 투자자로 부상하고 있음
 - － 2000년 이후 지속적인 국제유가상승으로 인해 축적된 풍부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규모 투자 재원이 필요한 국내의 유망 사업에 대한 투자자로서 최적으로 평가됨
- 그러나 국가가 소유, 관리하는 대부분의 국부펀드들의 특성상 주주나 투자자를 의식할 필요가 없어 지배구조, 투자내역, 의사결정과정 등에 관한 실태가 거의 공개되지 않음
 - － Sovereign Wealth Fund Institute에서 발표하는 린나버그-마두엘 투명성지수 (Linaburg-Maduell Transparency Index)에서도 중동지역 국부펀드들의 정보투명성이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됨

**린나버그-마두엘 투명성지수
(Linaburg-Maduell Transparency Index)**

- ◇ 국부펀드 전문기관인 Sovereign Wealth Fund Institute에서 개발한 지수로 10개 항목을 지수화하여 1~10점까지 등급을 부여.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 아주 투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10점을 부여하고 최저점은 1점임. 발표기관에서는 충분한 투명성의 기준을 8점 이상으로 잡고 있음
- ◇ 평가를 위한 10개 항목은 ① 설립배경, 자금의 원천, 정부소유구조 제공 ② 외부 감사된 연차보고서 공시 ③ 보유회사의 지분율 및 보유회사의 지역분포 정보 제공 ④ 보유 포트폴리오 시장가격과 투자성과 및 경영진의 보수 공개 ⑤ 윤리강령 및 투자원칙 마련 여부 ⑥ 분명한 투자전략과 목표 ⑦ 자회사의 연락처 공개 ⑧ 외부기관을 이용할 경우 관련 외부기관 공개 ⑨ 웹사이트 운영 ⑩ 본점의 주소 및 연락처 공개 임

<2010년 1분기 중동지역 국부펀드 투명성지수>



자료: Gulf News, July 7, 2010.

- 국부펀드들은 보유 국가에 의해 직접적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펀드설립국가의 전략적 목표를 위한 투자에 비중을 두기도 한다는 점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을 중심으로 논란을 제기
- 실제로 최근 중동 국부펀드의 일부 투자에 대해 해당국 정부에서 국가 기밀 정보의 누출 및 안보상 우려를 제기하며 개입한 사례들이 발생
 - 2006년 UAE의 Dubai Port World가 미국 동부지역 항만을 관리하는 P&O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미국 의회가 안보상의 이유로 개입하여 항만운영을 결국 미국업체에 맡기기로 함
 - 2007년 UAE의 Borse Dubai가 나스닥 지분 19.99%를 인수하고 나스닥이 보유한 런던 증권거래소 지분 20%도 인수함에 따라 당시 부시 대통령이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국영기업들의 경영상황을 안보기관들이 점검하도록 조치
 - 2007년 UAE의 Dubai World가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국제공항 지분 20%를 인수하기로 했으나, 뉴질랜드 정부가 안보상의 이유로 개입하여 두바이 측에서 취소함

- 일부 유럽 국가는 국부펀드들의 공격적 투자 부작용을 방어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
 - 프랑스는 2008년 전략투자기금(SIF)을 만들어 외국기업에 팔릴 위기에 놓인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실제로 지난해 케이블회사인 넥산스가 대주주가 없어 적대적 M&A 위협에 노출되자 600만 유로를 들여 이 회사 지분 5%를 장내매수하고 경영권을 안정시킴
 - 독일은 공익을 위하여 국내기업의 25% 이상 지분 취득 시 정부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며, 호주 정부는 2008년 2월 선진국 중 처음으로 국부펀드를 규제하는 내용의 「외국인 투자 6대 심사원칙」을 제정
- 중동지역 국부펀드의 해외투자활동으로 인한 영향력이 부각됨에 따라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부펀드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IMF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투자 투명성 요구가 거세지고 있음
 - 2008년 10월, IMF 주도로 국부펀드의 정보공개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목적의 투자를 배제하고 세계금융시장의 안정에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티아고 원칙이 발표
 - 2009년 4월, 후속조치로서 쿠웨이트 선언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국부펀드 국제포럼을 설치하여 산티아고 원칙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기로 합의
 - 아부다비의 국부펀드인 무바달라(Mubadala)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8년 중동 국부펀드 가운데 최초로 신용등급 평가를 받기로 결정하였으며, 2010년 3월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인 아부다비투자청(ADIA)은 2010년 3월 첫 번째 자체 연차보고서를 발간

산티아고 원칙(The Santiago Principles)

- ◇ 2008년 10월 IMF와 세계 26개 국부펀드 모임인 국제실무그룹(IWG: The International Working Group of Sovereign Wealth Funds)이 합의한 산티아고 원칙은 △국부펀드의 법적 구조와 목적, 세계 거시경제를 위한 정책적 협력 △국부펀드의 틀과 지배구조 △국부펀드의 운영에 있어서 건전성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와 위험관리 방식 등 3가지 핵심 분야를 다룸
- ◇ 자발적인 준수가 요구되며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규정이 없는 게 한계이나 특정 국부펀드가 산티아고 원칙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위반하면 IWG 내에서 자체적으로 압력과 비판을 받게 되고, 투자대상국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비강제적 규정이지만 국부펀드를 규율하는 중요한 규범이 되고 있음

□ 반면 영국과 일본은 중동 국부펀드 유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 일본은 국부펀드가 자국 은행의 지분을 20% 이상 취득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며, 조세협약을 맺지 않은 중동 국가들에 대해 현행 최대 40%까지 부과되는 법인세의 면제를 추진 중에 있음
- 영국은 국제금융 중심지인 런던의 경쟁우위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을 해소하고자 외국 국부펀드들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국부펀드의 자국 투자에 대해 기존의 독점방지법에 대한 저축 여부만을 확인

3

중동 국부펀드 유치의 새로운 기회

- 중동 국부펀드는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과 경기침체 및 인플레이션과 같이 국제경제의 불안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중요한 투자자로 부상하고 있음

- 특히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전 세계의 경기침체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불안한 현 시점에서, 중동 국부펀드의 투자대상이 안정적인 서방 선진국에서 높은 성장성이 담보되는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점은 한국기업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음
 - 중동 국부펀드는 공기업 민영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등 한국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 부응할 수 있는 주요한 투자자임
 - 카타르, 쿠웨이트 등의 국부펀드들도 향후 아시아지역 투자를 적극 확대하는 방침을 연이어 공개함에 따라 유치전망을 높게 함
- UAE 원전수주, 중동 국가들의 국가발전계획 수립 등 중동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외적 여건 성숙
- UAE 원전수주를 시작으로 중동지역의 에너지, 해양설비, 담수 등 플랜트 수주가 잇따르는 등 한-중동 간 다양한 경협사업을 통해 한국의 경제를 알리고 새로운 투자기회를 소개할 기반이 조성
 - 중동의 산업발전과 연계된 SOC, 석유화학, IT 및 환경 프로젝트 관련 산업 등도 투자유치대상으로 가능
- 중동 국부펀드 유치를 위해 금융시스템의 선진화, 투자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중동 측에서 관심을 보이는 공기업 민영화 및 대기업 구조조정 매물 등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등 장·단기에 걸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됨

IV. 중동 국부펀드 투자유치 전략

1

중동국부펀드의 투자특성

□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구조

- 중동 국부펀드는 일반적으로 재무적 투자자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투자 프로젝트에 따라 향후 중동 국가의 경제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전략적 투자자의 성향을 보이기도 함
- 막대한 규모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부펀드 투자 특성상 소형 프로젝트보다는 큰 자본이 투입되는 중대형 프로젝트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이 필요한 프로젝트 제안이 적절

□ 정부 및 고위층의 교류를 통한 기회 창출

- 중동 국부펀드는 석유판매수익을 재원으로 왕족이나 정부가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바, 왕족 및 정부고위관계자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들과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가야 함
- 국가주도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는 중동 국가의 특성상 정부 및 고위층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중요하며, 고위층의 정기적인 방문은 한국투자유치에 대한 의지와 각종 제도적 혜택 및 편의 제공에 대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방법이 됨
- 또한 선언적 협력강조나 양해각서 체결 등의 초기 단계적 노력뿐만 아니라 수익성이 담보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업계획을 사전에 준비하여 제시

2

투자프로젝트 별 유치전략

(1) 기업 투자유치 프로젝트

① 민영화 대상 공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의 구조조정

□ 공기업 및 대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들의 구조조정은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풍부한 유동성 및 투자력을 갖춘 국부펀드가 적절한 투자자로 평가됨

- 한국의 공기업 및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의 계열사 등은 중동 국부펀드의 관심도가 높은 대상으로 꼽힘
- 그러나 공기업 및 국내 대표적 기업에 외국자본이 유입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외자정서가 존재하며, 특히 경영권 보유여부가 민감한 사항임
- 외환위기시 경영권이 매각되었던 외환은행(론스타)과 쌍용자동차(상하이자동차)의 부정적 사례가 크게 알려짐에 따라 국부 및 핵심기술 유출이라는 측면이 강하게 부각됨
- 핵심기술 보유 및 국내 독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지분 매각 시 경영권 매각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기술과 국부유출 및 국가정보누출에 대한 국민정서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최소화 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

□ 구조조정 기업 지분매각 시 중동 국부펀드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조성

- 대량지분의 매각 시 자금사정상 국내기업이 총 인수금액을 모두 소화하지 못할 경우 중동 국부펀드를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시켜 컨소시엄 형태로 지분을 분할해서 매각하는 방법도 고려

② 고성장 중견기업 투자유치

- 반도체와 같이 추가 시설 설치에 대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는 장치산업 및 R&D 비용이 높은 바이오산업 등의 기업들 중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소개함으로써 추가 자금조달에 중동 국부펀드를 활용
 - － 실례로, 싱가포르의 대표적 국부펀드인 테마섹은 코스닥 시가총액 1,2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두 개 기업(서울반도체, 셀트리온)에 최근 대규모의 투자를 실시
 - － 2009년 11월 서울반도체에 유상증자의 형태로 약 2,600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셀트리온의 경우 2010년 4월 2,000억 원을 시설 및 R&D 자금목적으로 투자한 바 있음
 - － 서울반도체는 향후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LED분야의 혁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며, 셀트리온은 단백질 의약품 개발 및 생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기업으로, 뛰어난 기술력과 높은 성장성을 보유한 국내기업의 국부펀드 유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

③ 중동의 산업발전정책과 부합하는 사업

- 중동 국부펀드는 일반 제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자국의 산업화를 위해 중동의 산업발전에 기여 가능한 석유화학, 철강, IT/벤처 등의 분야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음
- 2008년 사우디아라비아의 Aramco와 Sabic은 중국의 푸젠 정유-석유화학 프로젝트에 투자
 - － 중국의 Sinopec, 미국의 ExxonMobil과 합작으로 중국에서 생산하게 될 석유화학제품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세계 최대 수준의 에틸렌 생산

능력을 지닌 ExxonMobil로부터 석유화학 프로젝트의 운영 노하우를 배우는 한편, 하류부문에서는 Sabic을 통해 중국 시장에서의 석유화학 제품 판매 노하우를 습득

- Aramco는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단순 채굴 및 생산의 단계에서 정제, 운송, 판매 등의 하류부분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함으로써 석유화학 산업 공급사슬 전반에 걸쳐 미래의 시장장악력 확대를 도모

- UAE의 ATIC(The Advanced Technology Investment Company)는 최근 적극적인 반도체 기업 M&A를 통해 장기적으로 아부다비에 반도체산업을 뿌리내리기 위해 투자하고 있으며, 국부펀드의 일반적 형태인 재무적 투자자가 아닌 전략적 투자자의 특성을 보다 강하게 나타냄

ATIC의 반도체 산업 진출

- ◇ ATIC(The Advanced Technology Investment Company)는 UAE의 아부다비 정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기술 기업으로, 선진 기술을 보유한 국내외 기업 투자를 통해 정부에 장기적 수익 창출을 목표로 2008년 설립
- ◇ 2008년 10월 미국의 AMD와 합작으로 첨단 반도체 제조 기업인 '글로벌파운드리'를 설립하였으며, 2009년 9월에는 세계 3위 파운드리 업체인 싱가포르의 '차터드 세미컨덕터'를 18억 달러에 매입함
- ◇ 막대한 국부펀드를 배경으로 중동 국가로는 유일하게 최근 공격적인 반도체 산업 투자 행보를 보이며 주목을 받고 있음

- 2010년 9월, ATIC는 총 70억달러 (약 8조 1,445억원)를 투자해 UAE의 수도 아부다비에 2014년 양산 가동을 목표로 반도체 라인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
- ATIC는 하이닉스의 인수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매각주잔사인 외환은행이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우선적인 매각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전체지분인수가 어렵다면 일부지분이라도 인수하겠다는 강력한 관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짐

- 역내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중동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양방향 투자협력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중동 국부펀드에 투자한 후 易유치하는 상호투자협력 형태인 마스다르 클린테크 펀드 사례 검토 가능

마스다르 클린테크 펀드

- ◇ 마스다르 클린테크 펀드(Masdar Clean Tech Fund)는 아부다비 국부펀드에서 100% 출자한 아부다비미래에너지공사에서 조성한 펀드로, 청정에너지(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및 저장), 수자원, 환경솔루션, 에너지효율, 친환경분야 (특히 아부다비의 환경에 적용 가능한 분야)의 기술력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에 지분 투자
- ◇ 2006년 11월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 컨센서스 비즈니스 그룹(Consensus Business Group)과 제휴하여 2억 5천만 달러 상당의 1호 펀드를 조성하여 21%의 높은 수익률을 거둠
- ◇ 현재 5억 달러를 목표로 하는 2호 펀드를 조성 중에 있으며, 도이치뱅크와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일본석유개발(JODCO)등이 참여를 확정지었고, 한국 측에도 2차 조성액 대비 10~20% 금액의 투자를 요청한 상태
- ◇ 2호 펀드 총액의 약 10%를 아시아지역에 투자할 계획에 있으며, 한국에 투자대상 프로젝트 발굴을 요청

(2) 부동산 및 SOC 개발사업 프로젝트

- 중동 국부펀드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참여는 재무적 투자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사업구조 및 수익성의 제시가 매우 중요
- 사업개발자가 확정된 프로젝트 중, 중동 국부펀드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참여기업, 사업일정, 수익률 등 완성된 사업제안구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참여기업의 인지도 및 우수성 강조 등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구체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물에 대한 완벽한 사전준비 없이 단순히 홍보나 투자유치 의향만 전달하는 경우 투자 의사 표명 수준에서 흐지부지 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음을 유의
- SOC 투자 프로젝트 또한 참여기업과 일정, 수익성 등 명확한 사업의 구조를 확정지은 단계에서 매물을 제시해야 함
 - 2011년 예산안 중 SOC 부문이 24조 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00억원 가량 줄어들어 전체 항목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부문이며, 도로신설 관련 예산은 책정되지 않음
 - 해운항만, 물류, 도로 등 전년대비 사업 예산이 축소된 SOC 부문에 중동 국부펀드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
- 해외 플랜트 수주 및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한-중동 합작 패키지 개발
 - 한국기업의 시공기술과 중동 국부펀드 자본이 결합하여 중동 역내 혹은 제3국 건설 및 자원개발 사업에 함께 투자하는 방안도 가능
 - 대형 건설/플랜트 프로젝트의 경우 핵심기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사업 초기 외화 가득률이 30% 수준에 불과한 상황을 감안할 때 중동자본 파이낸싱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한국의 대다수 플랜트수주 업체들은 중동 산유국이 발주한 석유화학플랜트 사업 진행시 서방 외국계 은행에서 차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외화 차입선의 다변화 추구 차원에서도 중동 자본 활용의 필요성 증대

파이낸싱 실패로 수주를 포기한 사례

- ◇ 2008년 10월, 쌍용건설과 현대건설, 두산건설, 코오롱건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추진키로 했던 이라크 북부 크루드 재건사업이 무산
- ◇ 이 프로젝트는 쿠르드 자치정부가 한국 석유공사에 8개 광구 개발권을 주고 건설사 컨소시엄이 상하수도과 고속도로, 발전소, 학교 등의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패키지딜' 사업으로 계약규모는 해외 건설 사상 최대 규모인 107억 8천만 달러에 달함
- ◇ 쿠르드 SOC 사업 컨소시엄과 쿠르드 자치정부간 체결한 협약은 금융 주선을 전제로 한 조건부 협약이었으나 기한까지 금융주선과 PF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컨소시엄을 불가피하게 청산

- 현재 일본의 경우 스미모토 화학·미쓰이 물산·미쓰이스미모토은행등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발전·조수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해 중동 자금 활용에 나서고 있음
 - UAE 원전수주로 인해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인지도 및 시장의 평가가 높아진 상황에서 추가 수주 기회를 노릴 수 있으며, 중동 국가들의 post-oil 시대에 대비한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을 계기로 대형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을 최대한 활용 (캐마위야드 석유화학단지, 마스다르 건설 등)
 - 제 3세계 광물자원 개발 사업에 한-중동 공동참여를 통해 건설수익 및 안정적 자원조달 효과를 공유
- 개발 프로젝트 계획이 많은 기타 아시아 국가들도 현재 중동 국부펀드의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의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개방, 금융기관 제도의 개선, 국제거래 기능 향상 등 선진적 투자 환경 조성이 뒷받침 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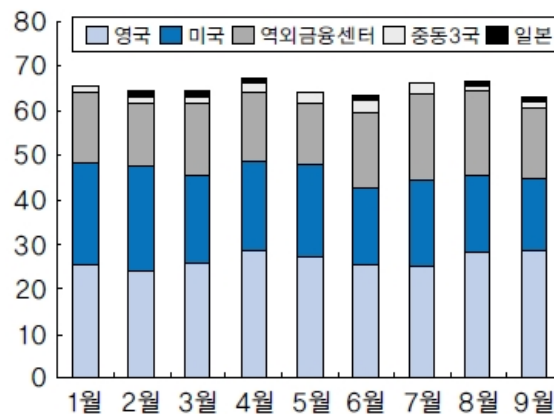
(3) 금융상품 투자 프로젝트

- 일반적인 한국의 운용사들은 중동 국부펀드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를 거의 갖추고 있지 않으며, IR을 통한 정부의 중개 역할이 중요
 - 국내펀드 조성 시 중동 국부펀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내 유수의 PEF, VC를 적극 소개
- 현재 중동 자본의 금융상품 투자는 글로벌 중개기관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한국의 금융기관도 글로벌화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
 - 한국에 대한 중동 국부펀드의 유입도 글로벌 중개기관을 통한 국내 주식 시장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따라서 통계자료만으로는 중동자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실제로, 널리 알려진 IPIC의 현대오일뱅크 지분 70% 인수와 두바이 항만 공사의 부산신항만주식회사 지분 25% 인수 등은 외국법인 중개를 통한 투자로 중동투자 통계에서 제외되어 있음
- 중동 산유국들은 주식투자에 있어 안정적 시스템을 갖춘 서구 중개기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영국 소재의 운용사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인 UAE의 아부다비투자청(ADIA)은 투자포트폴리오의 70~80%가 외부기관 위탁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쿠웨이트투자청(KIA)의 경우 본사는 Kuwait City에, 자회사는 영국 런던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투자는 자회사 소재 지역인 영국에 기반을 두고 운영되고 있음

- 최근 영국이 미국 이상의 최대 해외투자 국가로 부상하는 현상도 중동자본과 런던금융센터의 역할이 주요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한국의 주식시장에서도 영국과 역외금융센터의 거래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외국인 주식투자 주요국 거래 비중>

(단위: %)



자료: 금융감독원

- 기존 중동 국부펀드의 실질적인 운용을 담당해온 gate keeper(영국 소재의 운용사들)들의 제도와 기준, 방법을 연구해볼 필요도 있음
- 해외 우수 금융기관의 경우 중동지역 국부펀드 전담조직을 두고 관련 영업 기회를 포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부펀드들이 이들 금융기관에 직접 지분을 투자하는 양상을 보임
 - 실제로 2007년 이후 중동 국부펀드들은 미국의 The Carlyle Group, Merrill Lynch, Citigroup과 같은 금융기관의 지분을 매입
 - 반면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현지점포망이 부족할 뿐 아니라 금융상품, 결제시스템, 시장동향 분석 등 많은 부분에서 열위에 있어 금융시스템의 경쟁력 강화가 우선적으로 요구됨

3

장기적 교류기반 조성

(1) 이슬람금융의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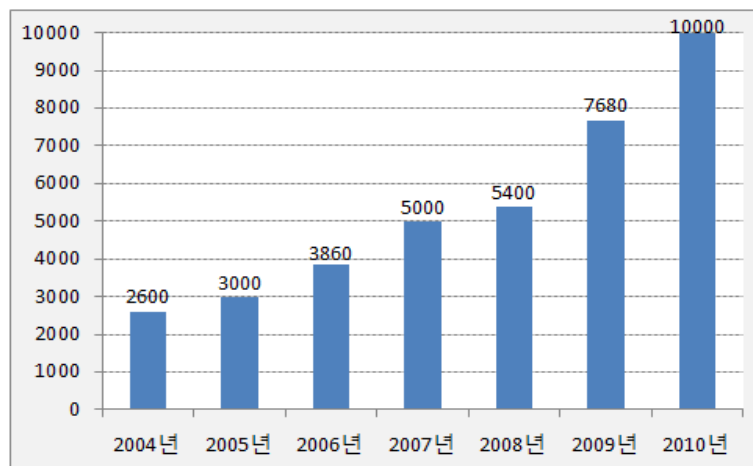
① 이슬람금융 도입의 이점 및 시기적 중요성

□ 이슬람 자본은 화교자본 못지않은 자금력을 지닌 것으로 추정되며 이슬람 금융의 국내도입은 국제유가 상승 이후 풍부해진 중동지역의 오일머니를 대거 유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 이슬람금융은 2000년대 들어 연간 15%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지난 1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했으며, 2010년에는 운용자산 규모가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세계 이슬람 총 자산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Bloomberg

□ 또한 미국 및 유럽경제와의 낮은 연관성,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상대적 안정성 등도 자금조달 시장 다변화의 새로운 대상으로 평가됨

-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 상 실물거래가 수반된 금융거래만을 허용하는 이슬람 금융은 무분별한 신용의 확대 재생산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크게 부각

<주요 이슬람 금융상품(Sukuk)>

상품/거래명		금융방식	일반금융사례
투자 및 손익분배	무다라바 (Mudarabah)	출자자(금융기관)가 신뢰할 수 있는 사업가에게 자금을 위탁하는 공동투자형태. 출자자는 경영에 일체의 간섭 없이 약정한 이익배분율에 따라 배당금 수취 (손실발생시 출자자가 모두 감수)	벤처캐피탈, 뮤추얼펀드
	무샤라카 (Musharaka)	금융기관과 사업가가 일정 비율로 각각 사업에 출자하고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수취 권리와 경영에 대한 발언권을 가짐 (손실발생시 공동 감수)	조인트벤처
상품 등 거래기초	이자라 (Ijara)	금융기관이 사업가를 대신해 상품을 구입한 후 사업가에게 임대해 사용료를 받는 방식	리스
	무라바하 (Murabahah)	금융기관이 물품 구입자에게 구입자금을 제공하고 원금과 수수료를 할부로 회수하는 방식	소비자금융, 할부금융
	이스티스나 (Istisna)	금융기관이 생산자(건설사)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생산(건설) 완료 후 판매수입에서 원금을 회수	생산자 금융, 프로젝트파이낸싱

자료: 한국투자증권

□ 9.11 테러 이후 미국 내 이슬람 자금 흐름에 대한 감시와 압박이 강해지면서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을 주시하게 되었으며, 정치적 이유로 인한 미국과 중동의 제한적 경제교류 상황이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곧 기회로 인식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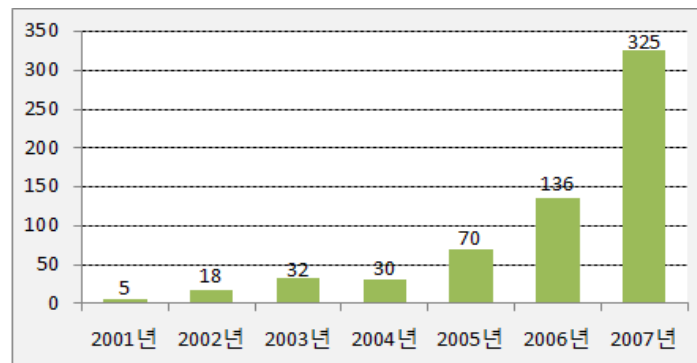
- 미국과 중동의 경제적 교류가 완전 정상화 될 경우 세계 최고의 금융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금융기업이 이슬람자본시장에 빠르게 침투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

□ 뉴욕을 제치고 국제금융시장의 최대 허브로 떠오르고 있는 런던은 이슬람 금융에 대한 미국 세력의 시기적 공백을 틈타 이미 적극적 허브 선점전략을 추진 중

- 2007년 런던에서 개최한 국제이슬람금융 정상회의에서 영국정부는 “런던을 국제이슬람 금융허브로 키우겠다”고 선언했으며, 싱가포르의 리완유 전 총리는 “중동자금을 잡느냐 놓치느냐는 향후 5~6년 안에 결정된다”며 시기적 중요성을 강조
 - 9.11 테러 이후 고조된 아랍권의 반미 감정에 따른 반사이익 등이 런던의 강점으로 꼽히며, 영국정부는 2004년과 2005년 각각 영국이슬람은행(IBB)과 유럽이슬람투자은행(EIIB) 설립을 인가하며 이슬람 금융 기반을 조성
- 이슬람금융의 대상에는 중동과 함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터키, 이란, 이집트 등 BRICs를 이을 차세대 시장으로 평가되는 차기 N11 국가 다수가 포함되어 있어 투자대상으로서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
- 이슬람채권(Sukuk) 발행규모는 2001년 5억 달러에서 2007년 325억 달러로 연평균 61% 성장하고 있으며, 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관련 제도 미비로 인해 발행사례가 전무

<세계 이슬람채권 발행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Bloomberg

- 이슬람금융 기반 조성을 통한 초기 네트워크 구축여부는 한국과 이슬람금융과의 거래를 위해 필수적이며, 이슬람금융 도입 시기를 놓칠 경우 향후 거래에 있어 글로벌 금융회사들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 가능

② 이슬람금융 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의 노력

- 이슬람 금융허브를 자처하는 말레이시아를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이 이슬람금융 유치를 위한 강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말레이시아와 영국이 가장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아직 절대적 선점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막강한 잠재력을 보유한 이슬람 금융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조세혜택과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각국의 정책이 실행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떠오르는 이슬람금융 시장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경쟁 중
 - － 영국: EU 국가 중 유일하게 이슬람금융 면허 취득은행 보유 및 세제개편 추진 중이며 모기지과 이슬람식 주택대출을 한 구매자들에게 이중과세를 폐지했고, 2012년 개최되는 런던 하계올림픽 예산자금의 일부를 이슬람 채권으로 발행하여 조달 중
 - － 말레이시아: 전 세계에서 발행된 이슬람채권 중 말레이시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이슬람금융이 발달하였으며, 아시아에 있는 이슬람 국가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아시아와 중동을 연결하는 금융 중심지로서 최근 위상이 강화. 2004년 외국인의 이슬람채권 투자에 대한 원천과세를 폐지하였으며 2007년부터 10년간 이슬람금융회사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단행
 - － 싱가포르: 싱가포르 달러표시 이슬람채권에 대해서 싱가포르 국채와 동등한 세금 및 규제를 적용하는 등 자국 내 이슬람금융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 중. 비 이슬람국가 중 샤리아 보드의 유일한 정식회원이며, 이슬람주가지수를 도입

□ 특히 이웃 일본과 중국은 아시아 경제의 중심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이슬람 금융의 도입 및 활용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은 2008년 일본 은행들이 해외지점을 통하여 이슬람금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 현재 도쿄미쓰비시UFJ은행 말레이시아 지점이 현지에서 이슬람금융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이며 G7 국가들 중 가장 먼저 이슬람 국채발행을 추진 중임
- 또한 한국의 수출입은행과 비슷한 성격의 국책은행인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은 최대 5억 달러 규모의 이슬람채권을 말레이시아에서 발행키로 하고 실무준비 중
- 중국정부는 2004년부터 '중국-아랍포럼'을 정례화하여 고위공무원, 기업 및 금융전문가의 유대관계 형성을 지원
- 중국 내 소비재분야 국영기업인 화룬창업(CRC)는 사우디아라비아 투자회사인 ARI와 제휴하여 1억 달러의 샤리아 투자펀드(SAIF)를 조성하였으며 향후 5억 달러까지 확대 계획을 발표

③ 한국의 이슬람금융 도입 현황 및 과제

□ 한국은 이슬람금융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며, 대표적인 이슬람 금융상품인 이슬람채권 도입의 필요성이 공감을 얻으며 추진 중이나 현재 금융, 회계, 조세 등 관련제도의 미비로 발행실적이 전무

- 이슬람채권은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금융거래 목적이라 할지라도 형식상으로는 실물거래 형태를 이용하여 발행하며, 현행 국내법상 채권해당여부의 불확실성과 형식적 자산이전거래로 인한 각종 추가세금문제가 미해결 상황

- 2009년 9월 외화자금 조달의 한 방법으로 이슬람채권에 대한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 논란과 테러집단에 대한 지원 우려 등 반대의견이 있어 논의가 무산
- 2010년 9월 현재 국회에 1년째 계류 중이며 올해 11월 국회에서 재논의 예정이나, 작년 관련법 통과를 전제로 이슬람채권 발행을 준비 중이던 국내 증권사들은 법인통과 지연으로 인한 해외 투자자들의 재설득에 어려움을 토로

(2) 장기적 관점의 對중동 네트워크 구축

① 중장기 중동 IR 로드맵 구상

- 국가 주도 IR의 경우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중동은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적 문화특성이 강한 지역으로 장기적 관점의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중요
- 중동국가와의 협력관계 및 체계적인 투자기반 구축 차원에서 3년, 5년 단위의 중장기 로드맵을 세우고, 각 연차별 IR 목표를 다시 세분화하여 단계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

<단계별 중장기 IR 계획(예시)>

단계	시기	단계별 목표
투자기반구축기	2010-2012년	▪ 중동 투자유치 장기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 ▪ 2010 중동 IR 후속사업 추진 및 Follow-Up
투자정착기	2013-2015년	▪ 양 지역 간 교류확대 및 신뢰구축 ▪ 세부사업 추진 및 2차 확대사업 발굴
투자확장기	2016년 이후	▪ 1차 투자목표 달성 및 민간기업간 투자 활성화 ▪ 정계, 학계, 경제계, 문화계 등 다방면 교류 확대

② 對 중동 교류 정례화 및 인프라 강화

□ 중동 국부펀드 유치 및 활용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중요하며, 실질적인 투자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수치화된 사업제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 고위급 아부다비 투자유치 사절단 방한 정례화 추진 (2009년 6월 아부다비 경제개발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아부다비 투자청, 무바달라 등 국부펀드 사절단 방한)
- 정부 고위인사를 단장으로 하는 중동 IR 활동 정례화를 통해 중동에 대한 한국정부의 관심과 관계구축에 대한 노력을 적극 피력함과 동시에, 중동 국가의 유력인사, 왕족 일가 및 정책입안자, 대표기업 경영진들과의 인적 관계 구축

□ 對 중동 전문가 육성

- 아랍어 구사 가능한 지역 전문가 양성 및 정치, 경제, 외교, 문화, 교육, 사회, 금융 등 다방면의 중동 자문위원 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활용
- 중동의 고위층 지도자나 현지 정부에 대한 경제정책 자문을 통해 장기적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교류 채널 구축
- 중동 현지의 사업기회 및 투자계획과 같은 사업정보 입수를 위해 현지인 실무자 인맥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장기적 인적네트워크 관리가 필수
- 문화, 교육, 의료, 행정, 환경 등 서비스 분야 인력 교류 확대

□ 중동 현지에 한국투자유치를 위한 상시채널 확대 구축

- － 현장에서 상시상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현지에서 직접 마케팅 할 수 있는 최신 매물정보 및 투자정보 자료 제공
- － 중동 현지에 한국투자센터 설치 및 상주 전문 인력 파견

□ 지속적으로 한국을 홍보하는 작업이 기본적으로 병행되어야 함

- － 투자대상으로서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며, 원전수주로 인해 상승세를 타고 있는 한국의 산업과 기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부각시켜야 함

□ 장기적으로 경제, 에너지, 외교, 문화 등 각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부문별 협력방안이 수립 및 추진되어야 하며, 한 분야의 협력이 다른 분야의 진출 혹은 협력을 촉진하는 시너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1】 중동 주요 국부펀드 현황

아랍에미리트(UAE)

1. 아부다비투자청(ADIA)

- ☐ 1967년 당시 아부다비 금융재정부의 한 부문으로 설립되었던 Financial Investment Board가 ADIA(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로 대체되며 1976년에 설립
- ☐ 자본금 6,27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국부펀드이며, 지분의 100%를 아부다비 정부가 소유하고 있으며 정부의 감독을 받음
- ☐ ADIA의 목표는 미래의 아부다비 후손을 위한 부의 축적 및 관리로, 주식, 채권, 부동산, 고정수익자산, 대체 자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있으며 포트폴리오의 70~80%를 외부 펀드 매니저가 운용
- ☐ 최근 공보담당을 채용하고 Santiago 원칙 준수 발표 등 보수적 이미지를 탈피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2010년 3월 자체 연차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하였으나 공개된 정보가 기존에 언론사 등에서 발표된 자료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을 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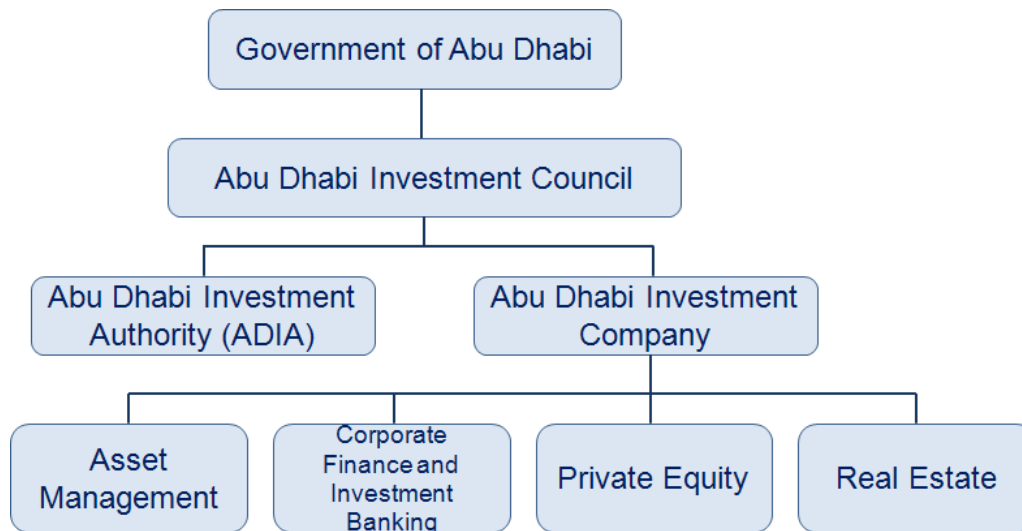
☐ 자산 배분 내역

선진시장주식	45-55%	국채	4-8%
소액투자자	12-18%	부동산	2-8%
기업&기타채권	5-10%	신흥시장주식	1-4%
대체투자	5-10%	사모펀드	0-4%

□ 주요 투자 지역

미국	35-50%	유럽	25-35%
아시아	10-20%	신흥시장	15-25%

□ 조직구조



자료: Monitor Company Group, 2008

2. 아부다비투자회사(ADIC)

- ADIC(Abu Dhabi Investment Company)는 1977년 최초로 설립된 자본투자 회사로 아부다비투자청과 아부다비국영은행(2%)의 공동소유임
- 아부다비투자평의회(Abu Dhabi Investment Council) 예산흑자의 70%는 ADIA로, 나머지 30%정도가 ADIC로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문 서비스 이외에 특별히 투자와 법인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Joint Stock Company임
- 주요 투자대상은 private equity, 부동산, 자산관리 및 인프라 부문에 투자하며, 아부다비 국영은행의 지분 73%를 소유하고 있음

3. 에미레이트투자청(EIA)

- ☐ EIA(Emirate Investment Authority)는 UAE 연방정부의 국부펀드 경영을 위탁·관리하는 기관으로 2007년 11월 에미레이트 칙령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아부다비, 아즈만, 두바이, 후자이라, 라스 알카이마, 샤르자 및 알꾸와인 등 UAE 7개 연방 모두에 적용되는 최초의 국부펀드임
- ☐ 정확한 자산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연방정부 재정수익 달성 및 GCC와 해외의 민간 및 공공시장에서의 투자기회를 활용하여 국부펀드를 개발함으로써 정부자산의 증대를 극대화하는 것을 주목표로 함

4. 두바이투자법인(Investment Corporation of Dubai)

- ☐ 재정투자국으로부터 정부 투자포트폴리오 이전과 함께 2006년 5월에 설립된 두바이투자법인(ICD)은 정부의 산하 투자기관들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자산을 크게 다음 세 개 회사에 나누어 운영하고 있음
- ☐ 보스두바이주식회사(Borse Dubai, Ltd.)는 2007년 증권거래업무를 목적으로 자본금 22억 달러로 설립되었으며, 두바이 금융시장과 두바이 국제외환시장을 위한 지주회사로 활동하고 있음
- ☐ 두바이홀딩스(Dubai Holdings)는 2004년 10월 두바이 내 인프라 구축 사업 및 투자 프로젝트를 통합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국왕이 97.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Dubai International Capital, Dubai Group, Tatweer와 같은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왕가의 재정관리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려짐
- ☐ 두바이월드(Dubai World)는 중동의 최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기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2005년 두바이 지방정부에 의해 출범되어 DP World, Istithmar, Limitless와 같은 자회사를 두고 있음

5. Istithmar

□ 2002년 10월에 설립된 Dubai World의 계열사로 글로벌 투자를 통한 고수익 달성을 주목표로 하며, 미국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2006~7년 의욕적인 투자를 했으나 주가급락 및 신용경색으로 큰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짐

□ 최근 거래로는 Barney New York(2007년 6월, 9억 4,200만 달러, 100%지분), Time Warner(2007년 2월, 20억 달러, 2.39%지분), Standard Chartered(2006년 10월, 10억 달러, 2.7%지분), Loehmann's Holdings(2006년 5월, 3억 달러), 280 Park Avenue(2006년 4월, 12억 달러, 100%지분)등이 알려져 있음

□ 조직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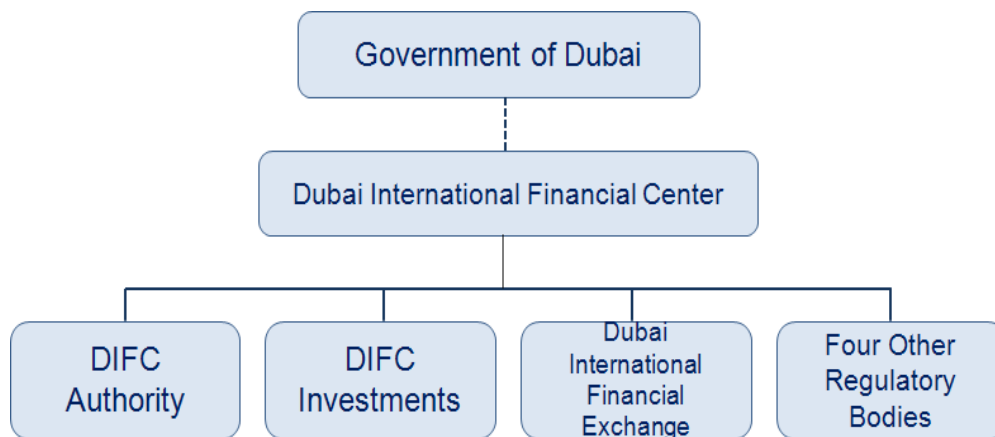
자료: Monitor Company Group, 2008

□ 자산 배분

부동산	60%
지분&벤처자본	40%

6. 두바이국제파이낸셜센터(DIFC)

- ☐ 두바이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 허브격인 DIFC(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는 2006년 4월에 하부조직관리 및 전략적 제휴 관리 등의 목적으로 설립
- ☐ 두바이 주식 거래소의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글로벌 주식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회사인 DIFC Investment는 두바이를 글로벌 금융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투자 중임
- ☐ 최근 거래로는 OMX AB(2008년 2월, 47억 달러, 98.4%지분), London Stock Exchange(2007년 8월, 16억 달러, 28%지분), Deutsche Bank(2007년 5월, 18억 달러, 2.2%지분), Euronext of France(2006년 4월 및 2007년 2월, 3억 7,000만 달러, 3.48%지분) 등이 알려져 있음
- ☐ 조직구조



자료: Monitor Company Group,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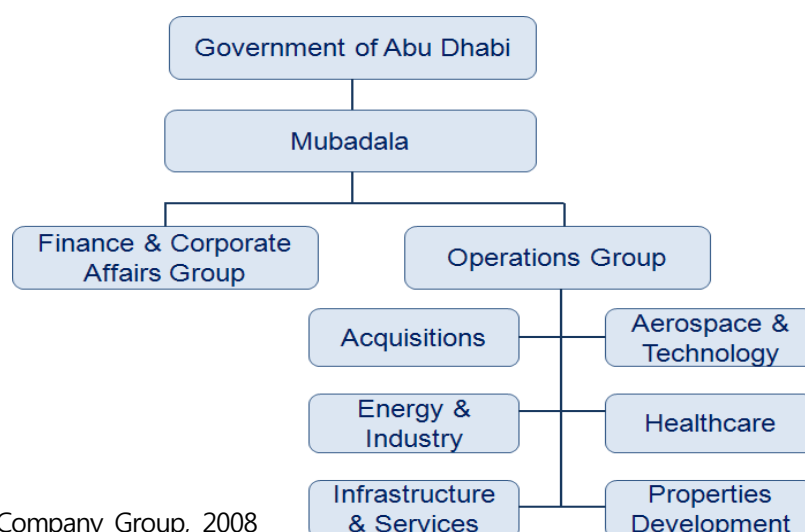
☐ 자산 배분

고정수익자산	17%	산업회사	~20%
운송회사	~40%	부동산회사	~15%
금융회사	~20%	기타	~5%

7. 무바달라개발회사(Mubadala Development Company)

- ☐ 아부다비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를 주목적으로 정부에서 100%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한 정부투자기관이며, 첨단기술과 우주항공 관련 회사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을 보임
- ☐ 2008년에는 GE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GE의 재생에너지 연수센터와 연계하여 청정에너지기술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억 달러 상당의 GE 지분 인수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업무협력관계를 구축
- ☐ 영국의 Rolls-Royce와도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중동지역 항공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2009년에 중동계 국부펀드로는 처음으로 연차보고서를 발표
- ☐ 최근 거래로는 이탈리아 Ferrari(2007년 6월, 1억 3,700만 달러, 5%지분), 이탈리아, Piaggio Aero(2006년 4월, 35%지분), 스위스 SR Technics(2006년 3월, 13억 달러, 40%지분), 미국 Carlyle Group(2005년 7월, 13억 5,000만 달러, 7.5%지분) 등이 알려져 있음

☐ 조직구조



자료: Monitor Company Group, 2008

사우디아라비아

8. SAMA해외지주회사(SAMA Foreign Holdings)

- ☐ 1952년에 정부중앙은행으로 설립되어 외환보유고를 관리하며 통화정책 수행을 주 업무로 하다 80년대 후반이후 정부채무 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며 국부펀드의 성격을 띠
- ☐ SAMA는 유동성 관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보수적으로 운용되며, 내부 운용기준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직접 관리하거나 일부 Money Manager를 별도로 선임하여 관리
- ☐ 민간투자가 아닌 선진국 대상의 안정성이 확보된 국채 등의 유가 증권에 보수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며 투자지역은 대부분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음
- ☐ 투자 포트폴리오는 채권 55%, 주식 25%, 은행예금/현금 20%로 매우 안정적인 자산에 집중

9. 사우디공공투자펀드(Public Investment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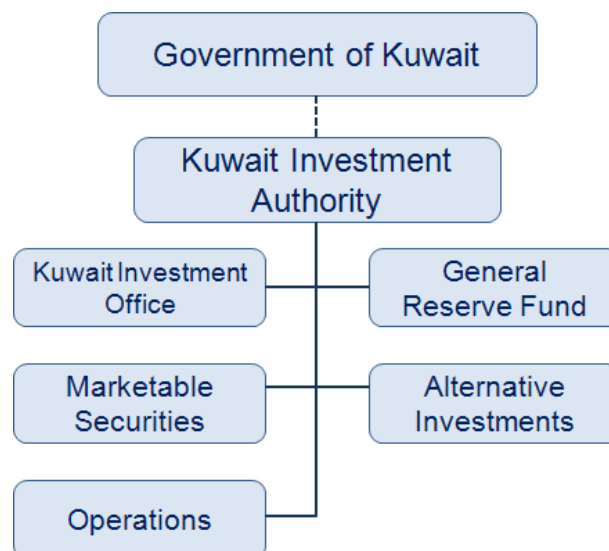
- ☐ 사우디공공투자펀드(PIF)는 국가의 경제개발을 돕기 위해 1971년 설립되었으며, 2010년 현재 약 50억 달러의 자산규모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 미국 국채 등 유동성이 확보된 주요 안정자산에 장기 투자하고 있으며, 국내 인프라 프로젝트 및 사우디 업체의 해외합작투자 프로젝트 등에 투자

쿠웨이트

10. 쿠웨이트투자청(Kuwait Investment Authority)

- ☐ 1953년에 설립된 전세계 최초의 국부펀드로, 본사는 Kuwait City에 자회사는 영국 런던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로 영국에 기반을 두고 운영되고 있음
- ☐ 2008년 일본에 대한 투자를 200% 확대하였으며,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270억 달러 투자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미국과 유럽에 편중되어 있었던 투자 비중을 70%선으로 감축하며 아시아에 대한 투자 강화를 가시화함
- ☐ 투자 포트폴리오는 주식 55-65%, 대체투자 8-12%, 채권 8-12%, 현금 3-7%, 부동산 8-12% 이며, 투자지역은 미국/유럽 76-86%, 아시아 및 일본 13-17%, 기타 신흥시장 4-6%로 알려져 있음

☐ 조직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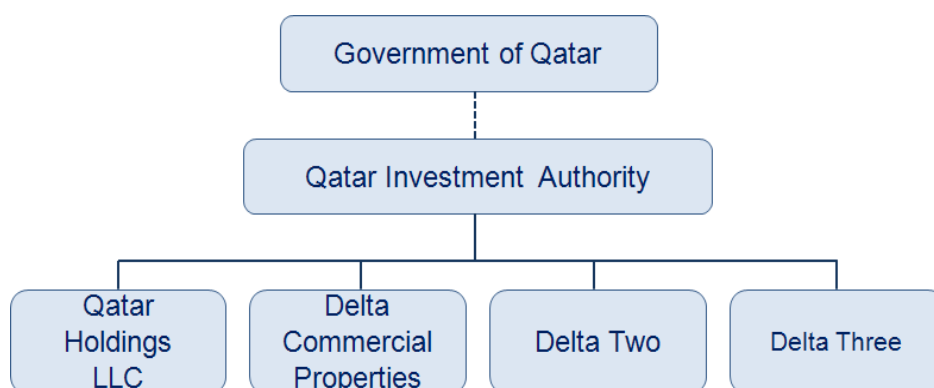


자료: Monitor Company Group, 2008

카타르

11. 카타르투자청(Qatar Investment Authority)

- ☐ 2005년에 설립된 카타르투자청은 에너지 가격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투자하는 국부펀드로, 국가의 외환잉여금 관리 및 경제문제를 결정하고 투자 최고위원회를 통해 정부에서 위탁한 국가자산을 개발·투자 및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
- ☐ 카타르는 LNG 최대 수출국중 하나로, 에너지 가격의존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유럽 및 아시아와 같은 국제시장과 카타르 내외 에너지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
- ☐ 최근에는 자국 금융기관은 물론 영국증권시장부터 유럽계 방산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에 걸쳐 국제투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동산 투자의 아시아 비중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 조직구조



자료: Monitor Company Group, 2008

- ☐ 미국 금융위기와 함께 아시아 투자를 40%대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와 8억 5천만 달러 자원개발 투자를 위한 공동펀드를 설립

- 최근 거래로는 Credit Suisse(2008년 2월), London Stock Exchange(2007년 9월, 20%지분), 영국 Chelsea Barracks(2007년 6월, 19억 달러), 스웨덴 OMX(2007년 4월, 14%지분), Four Seasons Healthcare(2006년 9월, 26억 달러, 100%지분) 등이 알려짐

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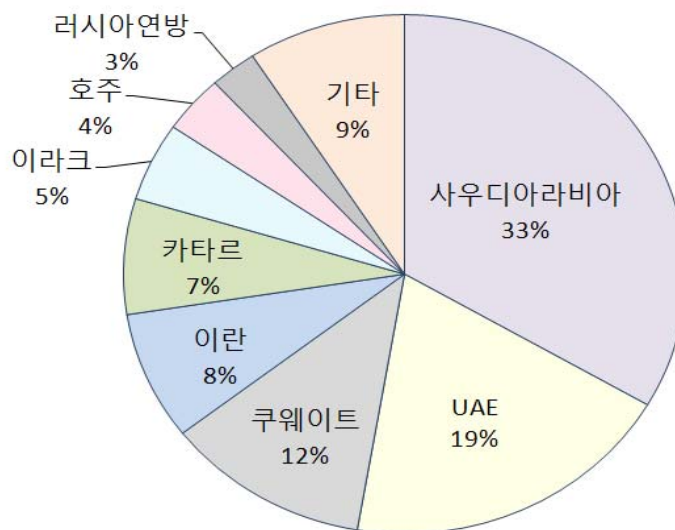
12. 이란안정화펀드(Oil Stabilization Fund)

- 이란 안정화 펀드는 이란의 석유수입을 투자하기 위해 설립된 펀드로, 지주 회사인 IFIC(Iran Foreign Investment Company)는 국가의 외환예금보유고를 해외에서 관리하고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 법인화 됨
- IFIC는 에너지, 텔레콤 및 IT, 은행업, 보험, 주식시장, 광산업 및 석유화학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 첨단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세계 여러 국가에 지분투자를 통해 관련 벤처기업을 소유하고 있음

【참고자료 2】 중동지역의 중요성

- 중동은 현재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인구 5%, GDP 3%, 수출 4%로 매우 작지만, 2000년 본격적인 고유가시대 진입 이후 투자가 가장 활발할 지역 중 하나로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평가됨
 - 한국과의 경제교류에 있어서도 수출비중은 전체의 4.3%로 낮은 편이며, 수입은 18.1%로 최대의 무역수지 적자지역이나, 건설과 플랜트 부문의 핵심적인 해외시장으로 전체 수주의 절반을 중동에서 수주
 - 높은 성장가능성을 기반으로 중동 주요국들은 자국의 산업화 정책을 추구하는 동시에 개발 사업에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기업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
- 한국은 2009년 기준으로 석유수요의 87%, LNG의 55%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중동 의존도는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한국의 주요 원유 수입국 비중>



자료: 대한석유협회, 2009

- 중동지역은 세계석유 매장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세계의 에너지 중동 의존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주요국들은 중동에 대한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음

중동과 GCC(Gulf Cooperation Council)

- ◇ 중동에 대한 명확한 범위 및 정의는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는데, 이는 아랍국가와 비아랍국가, 아시아국가와 아프리카국가 그리고 유럽국가, 이슬람국가와 비이슬람국가 공존하는 중동지역의 독특한 지리적 특성상 용어사용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임
- ◇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동국가라 함은 아랍어를 사용하는 19개 아랍국(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UAE, 알제리,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지부티,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및 팔레스타인)과 3개 비아랍국(이란, 이스라엘 및 터키)로 구분하여 22개 국가를 중동 국가로 칭함
- ◇ 중동 지역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은 오일머니 및 국부펀드가 집중되어 있고 한국과의 경제관계도 긴밀한 GCC(걸프협력위원회: Gulf Cooperation Council) 6개 회원국(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임
- ◇ 이란과 이라크는 서방 국가와의 대립 및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현재 협력이 제한적이나, 에너지 보유 현황과 성장잠재력 등을 볼 때 향후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국가로 평가됨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6개국에는 전 세계 석유매장량의 40%, 천연가스 매장량의 23%가 집중되어 있으며 2000년 이후 고유가의 수혜 속에 GCC 국가들은 지난 5년간 명목 GDP와 교역액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음.
- GCC 국가들은 지역경제통합을 강화하고, FTA를 통해 적극적인 대외 개방 정책을 추진 중
 - 현재 GCC국가는 20여건 이상의 FTA를 개별, 혹은 통합체로서 추진중이며 교역·투자 대상 다각화 차원에서 한국, 일본, 중국과의 FTA를 동시에 진행 중임

<GCC의 FTA 추진 현황>

협상단위형태	FTA 추진 현황		
	체결	협상	추진
블록 대 블록	GCC-EFTA(2009)	GCC-EU GCC-MERCOSUR	
블록 대 개별	GCC-레바논(2005) GCC-시리아(2005) GCC-싱가포르(2008)	GCC-중국, GCC-인도 GCC-일본, GCC-한국 GCC-호주, GCC-터키 GCC-뉴질랜드	GCC-파키스탄 GCC-이란
개별 대 개별	바레인-미국(2004) 오만-미국(2005)	UAE-미국 UAE-호주 쿠웨이트-미국	카타르-미국

자료: KIEP 지역경제포커스(2009)

- 중국, 일본, 인도, EU 등 세계 주요국 및 경제권들이 GCC와의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GCC는 최근 싱가포르(2008), EFTA(2009) 등과 FTA를 체결하였고,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EU, 남미공동시장(MERCOSUR),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 주요경제권 및 국가와 FTA 협상을 진행 중임
- GCC 국가들은 한국과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FTA에 의한 수입 확대에 따르는 부담은 적은 반면 고품질 상품의 수출확대 가능성은 매우 크며, 특히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할 수 있음
- GCC는 한국 최대의 에너지수입 지역이자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 대상 지역으로, 韓-GCC FTA는 양자 간 경제협력 확대 및 에너지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현재 정부 주도로 중동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강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중동국가들과 공동경제위원회의 형태로 정부 간 대화를 하고 있음

- GCC와는 2008년 7월 FTA 협상을 시작해 지난해 타결을 기대했지만, 석유화학산업 및 자동차산업 등에서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타결을 목표로 2010년 9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임

GCC 경제통합 추진

- ◇ 1981년 5월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등 걸프 6개국은 걸프만 연안의 산유국간에 정치, 경제, 군사 등 각 분야에서 협력하여 종합적인 안전보장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걸프협력위원회(GCC)를 설립
- ◇ 이후 GCC 6개국은 경제협력에 중점을 두고 1982년에는 역외관세를 통일했으며, 2003년 1월 1일자로 5%의 단일 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을 출범시킴
- ◇ 2008년 1월 1일에는 국경이동, 납세, 회사설립, 주식구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역내 활동이 자유로운 공동시장 체제를 출범하였으며, 현재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경제연합 단계를 논의 중
- ◇ 2009년 6월 경제연합의 단일통화를 관장할 중앙은행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가장 큰 후보지였던 UAE와 오만이 최종 서명을 거절함으로써 2015년으로 논의가 연기된 상황
- ◇ 경제연합이 설립되어 단일 통화권으로 통합이 실현될 경우 GDP 규모는 8천억 달러 규모로 세계 15위권인 호주와 유사한 경제규모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나, 현실적으로 단일통화권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임